

원자력관련시설입지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
: 위험수용(risk perception)의 관점에서

Reaction of the Residents to Nuclear-Related Policies
: in a Risk Perception Perspective

조성경
아주대학교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산5

요 약

원자력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자력관련 시설입지 정책 역시 정부가 정책주체로서 입안에서, 결정, 추진까지 일괄 처리하는, 소위 DAD(Decide-Announce-Defend) 방식을 사용해 왔다. 이는 지역주민 혹은 일반대중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간과한 것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원자력관련시설 입지 정책은 그 특성상 반드시 지역주민을 포함한 일반대중의 수용(acceptance)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일반대중은 원자력에 대해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자신들의 거주지역에 입지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양면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반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이를 근거로 정부와 일반 대중간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신뢰, 참여, 보상이라는 영향요인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주민의 정책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을 정책 결정의 대한 또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주민 참여의 제도적,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정부 및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